



정은경 "유흥시설 운영 최대한 자제를"...부산 클럽 107명 자가격리

기사입력 2020-04-26 16:17

중앙방역대책본부 26일 정례브리핑

20대 확진자가 전체의 27% 가장 많아...젊은 층 감염 유의해야



© News1 DB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대구의 1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의 클럽을 방문하면서 100명 넘게 자가격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청사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유흥시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 및 환기를 철

저히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개인간 밀접 접촉이 활발한 청년층에서 가장 감염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적된 확진자 중 20대가 2940명(2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20대 사망자는 0명으로 치명률이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젊은층은 별 위기감 없이 접촉 활동을 계속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청년층은 가족 등 다른 사회 구성원에 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정 본부장이 거듭 운영 자제를 권고한 이유다.

앞서 대구에 거주하는 한 확진자(19·남성)는 지난 17~18일 부산의 클럽을 방문한 뒤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다녀간 식당, 숙박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완료했으며, 해당 클럽의 방문자와 직원은 총 48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480명에 대한 접촉여부 조사 및 주점과 횡집 내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17일 SRT를 타고 오후 9시 20분 부산에 도착했다. 오후 11시 40분에는 부산진구 1970새마을 포차를 들렀다. 다음날 오전 2시에는 서면 클럽 바이브에서 1시간 30분간 있었다. 18일에는 오후 4시 30분 서구 송도해변로에 있는 청춘 횡집에서 식사한 뒤 무궁화호를 타고 대구로 귀가했다.

A군은 부산 방문 사흘 뒤인 20일 인후통·두통·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했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클럽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클럽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클럽에 종사하던 직원과 방문자 등은 모두 515명으로, 부산시와 보건당국은 이들의 접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중 접촉자로 분리된 인원은 107명이고, 클럽을 비롯해 횡집, 포차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은 총 123명이다. 이 123명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suhcrates@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